



미래좌담회

“핀란드 미래위원회는 위원들의 정파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미래보고서 채택”



■ 일시·장소 : 2018.10.12(금) 12:00~14:00, 콘래드호텔 회의실

■ 참석자 :

Q : 박 진(국회미래연구원 원장)

A : 올리-포이카 파비아이넨(핀란드 의회 미래위원회 위원)

이번 미래좌담회는 핀란드 의회 미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올리-포이카 파비아이넨 의원을 모시고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준비 과정에서 해외 사례로서 핀란드의 미래위원회가 자주 인용되었던 만큼, 핀란드 의회 미래위원회의 현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파비아이넨(Olli-Poika Parviainen)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녹색당(Green Parliamentary Group)으로 미래위원회 위원이고요. 핀란드 헬싱키 북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초선입니다. 그 지역의 시의회, 부 시장을 거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두고 있고 아내는 아주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한국방문은 처음이신지, 그리고 어떤 목적이신지요?

A: 정병국 의원실 주최 블록체인 관련 국제회의가 있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세 번째인데 과거 안양, 창원 등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Q: 핀란드에 사우나가 많다던데...정말 그런가요?

A: 네, 인구가 550만인데 200만개의 사우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작은 사우나가 있지요. 사우나가 있는 버스도 있고요, 물론 의회에도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도 사우나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과 핀란드의 공통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웃음)



< 미래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

Q: 미래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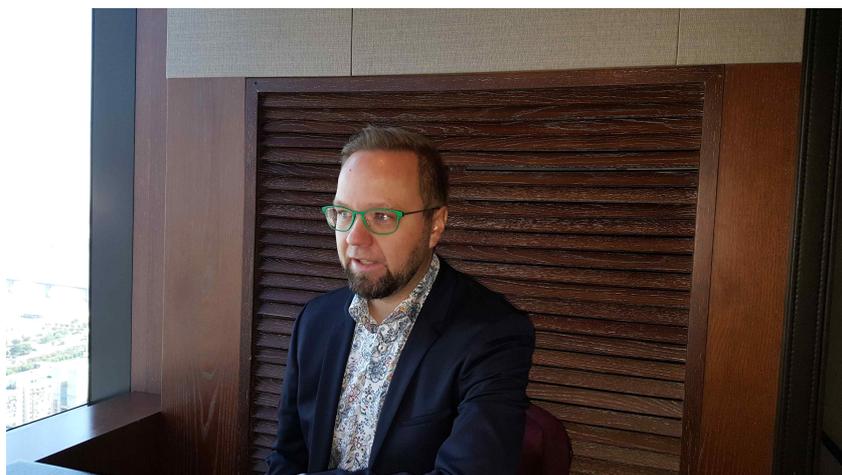
A: 미래위원회는 핀란드 의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행정부의 상대역은 수상입니다. 수상과 의회가 미래지향적 시각을 갖도록 하고 있지요. 직접 법안을 만들지는 않고요, 국회에 대한 연구(think-tank)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미래관점의 장기적 의제설정을 하는 위원회이지요.

Q: 미래위원회의 설립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A: 1990년 전후 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핀란드는 경제불황이 닥쳤습니다. 작은 국가인 핀란드로서는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것이지요. 그래서 미래에 대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93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졌으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00년 상임위로 승격되었지요.

Q: 미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미래위원회는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다른 위원회의 멤버이면서 미래위원회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의회는 다당제이어서 매우 다양한 정당이 의석 수에 따라 배정되어 있지요.



Q: 미래위원회의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는지요?

A: 미래위원회의 예산 역시 다른 공무원 조직과 같이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어 의회에서 확정됩니다. 미래위원회의 예산은 핀란드 국회 예산의 일부이지만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미래위원회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부여 받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쟁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연구용 예산이니 규모가 크지 않은 탓도 있고 미래대비 예산이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핀란드 미래위원회의 네 가지 역할과 시사점 >

Q: 미래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A: 첫째, 다른 상임위원회가 제출하는 법안에 대해 미래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둘째, 행정부가 작성하는 국가전략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수정방향을 제시합니다. 셋째,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미래의 주요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일도 합니다. 넷째, 미래 대비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Q: 네 가지 역할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도 앞으로 새로 제정 되는 법률에 대한 미래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핀란드의 다른 상임위원회는 미래위원회의 제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요?

A: 다른 상임위가 미래위원회의 의견을 꼭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미래를 위해 제시하는 의견이므로 존중하는 편입니다.



Q: 국회미래연구원도 각 부처가 작성하는 중장기계획의 미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핀란드 행정부는 미래위원회의 국가 전략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야 하나요?

A: 국가전략보고서가 의회에 의해 채택되기 위해서는 지적을 수용해야 하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행정부와 협의가 일어납니다. 미래위원회의 상대인 수상이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행정부는 미래위원회의 지적을 대체로 잘 수용합니다.

Q: 국회미래연구원도 현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네요. 핀란드에서는 이를 모두 국민에게 개방하겠군요?

A: 물론이지요. 참석개방은 물론 온라인에서 중계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매일 많은 공청회, 세미나가 개최되며 국회방송에서 이를 중계하기도 한다. 한편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은 각 상임위와 본회의를 생중계한다.)

Q: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바로 우리 국회미래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핀란드의 미래위원회 위원이 직접 연구할 시간은 없을텐데... 누가 작성하는지요?

A: 핀란드내 대학의 미래연구학과 교수 중 한 분이 아예 상임으로 연구총괄역할을 합니다. 그 아래 연구스태프가 많지는 않고 주로 외부에 있는 연구기관들을 활용합니다.



Q: 외부 연구진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방법과 비슷하군요. (국회미래연구원도 민간, 공공에 많은 연구협의회,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를 외부위탁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어떤 기관들이 연구에 참여하는지요?

A: 국가예지모임(National Foresight Network)이 조직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대학, 민간연구소 등 많은 기관들이 속해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의무가입이지만 대부분 유연하게 열린 네트워크이지요. 이 분들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합니다.

Q: 한국에는 아직 미래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자체 연구를 병행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군요. 특히 내부 연구진이 부문별 외부 연구진의 연구내용을 흡수하여 국회미래연구원 내에서 이를 융합해 내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A: 자체 연구진이 있다면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더욱 유리하겠지요.

Q: 그렇게 만들어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핀란드 미래위원회를 구성하는 정파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보고서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만 이를 요약, 발표하는 문구는 합의를 위해 표현을 수정합니다. 얼마 전 미래위원회의 기독교 관련 정당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용인을 확대하자는 보고서를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발표 문구에서는 이 주장을 삭제하되 원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죠.



< 마무리 >

Q: 핀란드식 야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적인 야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A: 투수가 홈베이스 옆에서 티볼처럼 공을 위로 던져 베이스 위로 떨어지면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는 올라 갔다가 베이스 위로 떨어지는 공을 치는 것입니다. 투수가 홈을 지키므로 포수를 겸하는 셈이지요. 1-2-3루를 거쳐 홈으로 들어오면 점수가 나는 것은 야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베이스의 위치, 룰 등은 조금 다르지요. 핀란드에서는 국기로 되어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Q: 오늘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은?

A: 한국에 국회미래연구원이 생겼다니 참 반갑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스코틀랜드, 호주, 덴마크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이 의회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1. 핀란드 의회 미래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Future)

○ 연혁

1993년에 설립했고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핀란드의 과학기술정책과 미래 관련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함. 위원회 소관 정부부처는 총리실임. 17명의 위원들은 각자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미래정책을 검토하되 합의를 중시하며, 미래정책의 시간적 범위는 장기간이며 이슈범위도 매우 넓음.

○ 미션

위원회 미션은 핀란드의 주요 미래 문제와 기회에 대해 정부와 토의하는 것임. 총리실이 의회에 장기 미래 전망과 정부의 정책목표를 보고서로 제출하면,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회의 대응을 준비함(Futures submission). 이 과정에서 핀란드 정부와 의회는 중요한 정치적 주제에 대해 정책대안이 열려 있는 초기 단계에서 인식할 수 있음. 아울러 타 위원회에 의견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함(draft submissions). 위원회의 역할 중 핵심은 정부부처 보고서나 예산 등을 평가하는 것 외에도 위원회의 자체 이슈와 사업과제가 중요한데, 위원회 자체 의제설정 기능이 위원회를 유지하는 근간 중 하나임.

○ 유럽의회 기술영향평가 네트워크(EPTA network) 회원 역할

EPTA(European network of parliamentary technology assessment)는 유럽 내에서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합적인 정책 조언으로서 기술영향평가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과 유럽 내 기술영향평가(TA) 수행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술영향평가는 과학, 기술과 사회 간 관계를 탐구하는 것으로서, 경제, 사회학, 생물학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특정 기술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형성함. 기술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발전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탐구하는 것임.

○ 주요 발간 보고서(영문)

2016 다음 세대를 위하여(For the Next Generations)

2016 기술의 변화 2013-2016 (Technological change 2013-2016)

2014 핀란드와 세계를 위한 100가지 기회(100 Opportunities for Finland and the World) 등

2. 올리-포이카 파비아이넨(Olli-Poika Parviainen) 의원 약력



○ 학력

- 핀란드 템페레대학교(University of Tampere) 정보과학 전공 석사
- 핀란드 템페레 응용과학대학교(Tamper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미디어 전공 학사

○ 주요 경력

- 핀란드 의회 의원 (2015. 4. ~ 현재)
- 핀란드 템페레시 부시장 (2011. 12. ~ 2015. 5.)
- 정보기술 사업체 운영 (2007. 4. ~ 2013.4.)
- 템페레 직업학교 교사 (2010. 8 ~ 2011. 11.)
- HAMK 대학 학생회 사무총장 (2009. 10. ~ 2010. 8.)
- 총리실 비서 (2004. 8. ~ 2009. 10.) 등

○ 주요 활동

- 핀란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5. 6. ~ 현재)
- 핀란드 의회 미래위원회 위원 (2015. 6. ~ 현재)
- 유럽 젠더평등위원회 산하 소수자 문제 위원회 위원 (2015. 6. ~ 현재)
- 녹색당 원내 수석부대표 (2015. 6. ~ 현재)
- 템페레 녹색당 의장 (2009 ~ 2015) 등